



보도시점

2026. 2. 1.(일) 11:00
2. 2.(월) 조간

배포 2026. 1. 30.(금) 16:00

2026년 농작물보험, 이렇게 바뀝니다!

- 농작물재해보험은 78개, 농업수입안정보험은 20개 품목 운영
- 예외적 할증 제한, 방재시설 할인 확대 등 농가 보험료 부담 완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8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회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대한 '25년 사업결과 및 '26년 추진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경영위험 관리를 지원하고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2001년부터, 자연재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201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순보험료의 50% 수준과 운영비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가입과 보상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다. 총 76개 품목 700천ha에 대해 632천명이 농작물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률은 전년 대비 3.3%p 증가한 57.7%, 순보험료 총액은 1조 3,300억원이었다. 가입률이 높은 품목은 사과 105.8%, 월동무 94.0%, 배 86.9%, 가을무 71.4%, 콩 67.8%, 벼 65.1% 등이었다.

지난해 냉해, 화재(산불), 폭염, 호우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총 281천명에 보험금 1조 3,93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손해율은 114.3%(누적손해율 101.5%)를 기록하였다. 호당 평균 보상금액은 495만원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 농업소득의 51.7% 수준이었다. 보험금 지급액이 큰 품목은 사과 2,639억원, 벼 2,522억원, 복숭아 823억원, 콩 685억원 등이었다.

이번 심의회를 통해 확정된 2026년 농작물보험 추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대상 품목·지역을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전년 대비 2개(오이, 시설깻잎) 품목을 추가한 78개,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전년 대비 5개 품목(사과, 배, 노지대파, 시설대파, 시설수박)을 추가한 20개에 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경우 지난해 운영했던 15개 품목 중 벼를 제외한 14개 품목을 전국 대상으로 운영한다.

② 농업현장과 수요자 맞춤형으로 상품을 개선 운영한다.

재해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 손실을 보상하던 상품을 수확량 손실 보상 상품으로 전환(봄·월동 무·배추)하고, 가입률이 90% 이상인 벼 병충해 보장 특약을 주계약으로 통합하여 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재배방식에 따른 생산 비용 차이를 고려해 보험에서 보장하는 생산비 등을 차등화(시설토마토·오이)하여 보상수준의 현실 부합성을 높인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기간 변화 등을 고려하여 상품별 가입·보장 기간을 현실화(벼, 고추, 단감, 봄배추 등)하고, 2024~2025년 폭염 피해로 제기된 보상기준도 개선(시설작물, 뽕은감 등)한다.

③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가입자별 재해위험도에 따라 보다 세밀하게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할인·할증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보험료 조정 요소로 ‘사고점수**’를 새롭게 도입한다.

* 누적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구간: ('25) 15개 구간(-30~50%) → ('26) 35개(-30~50%)

** 품목별 사고 발생·보상 특성을 고려해 누적 보상 횟수가 적을(많을)수록 할인(할증)

지난해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예측·회피 불가능한 이상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반복 보상으로 인한 지역별 기본 보험요율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입기준을 보완하는 등 농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도 진행된다.

품목별 재배 특성을 고려하여 해가림시설, 관수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해 발생 확률이 감소함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할인하는 품목도 확대된다.

* 방재시설 할인 품목: (‘25) 23개 품목 → (‘26) 25개 품목(+생강, 고랭지감자)

이번 심의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농작물보험이 보다 더 두터운 선택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다 실효성 있게 상품을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히며,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많은 농업인이 보험 제도를 통해 경영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2025년 농작물보험 주요 운영실적

담당 부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업정책보험과	책임자	과 장	김정욱 (044-201-2831)
		담당자	서기관	박혜민 (044-201-2836)

□ 농작물재해보험

구분	2024	2025	증감
가입 농가수(호)	589,676	601,075	11,399
가입면적(ha)	676,226	655,456	△20,770
가입률(% , %p)	54.2	54.0	△0.2
가입금액(억원)	315,751	347,351	31,601
순보험료(억원)	11,411	12,128	716
지급 보험금(억원)	10,208	13,357	3,149
지급 농가수(호)	243,274	265,715	22,441
손해율(% , %p)	97.9	119.9	22.0

□ 농업수입안정보험

구분	2024	2025	증감
가입 농가수(호)	3,297	31,018	27,721
가입면적(ha)	2,649	44,141	41,492
가입률(% , %p)	3.9	19.0	15.1
가입금액(억원)	927	9,086	8,159
순보험료(억원)	90	1,172	1,082
지급 보험금(억원)	63	575	511
지급 농가수(호)	1,872	15,606	13,734
손해율(% , %p)	76.6	55.1*	△21.6